



13805 과천시 희망길 36

과천외고 제2025-122호

## 가정통신문

전 화 : 070-4881-3400

교무부 : 070-4881-3451

행정실 : 02-6677-5726

### 2025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3호 배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

2025. Vol. **03**

발행인 박길현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전 화 044-415-2299 / FAX 044-415-3399

주 소 20147 서울특별시관악구 신림2로 371

· 서울특별시관악구 신림2로 371

본은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지키는 부모의 지혜

## 학부모 소식지



### 존중의 언어, 가정에서 시작하는 학교폭력 예방



차용우

서울외국어고등학교 교사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문제이다.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이가 처음 사회성을 배우는 곳은 다름 아닌 가정이다. 부모와 자녀가 나누는 언어 속에 존중이 있을 때, 학교폭력 예방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된다.

존중의 언어는 단순한 예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와 감정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담긴 대화 방식이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마음을 이해했어", "~해줄 수 있겠나?"와 같은 짧은 말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말을 끊거나 들어주지 않거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 이런 마음이었구나"라고 연설했을 때, 평소 반항적이던 학생이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차츰 대화에 마음을 열고 친구와의 갈등을 스스로 풀어나갈 사례도 있었다. 반대로, 무심한 비난이나 거친 말, 조롱이 일상화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학교에서도 그 언어 습관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교실이나 복도에서 학생들 간에 "왜냐", "저자"와 같은 단절적 표현이 무의식적으로 일상화되면 위대해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가정에서 익숙해진 언어 습관이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존중의 언어는 학교폭력 예방의 첫걸음이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져 오프라인 대화보다 메신저나 SNS를 더 자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무심코 사용하기 쉽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을 다룬다 보면 학생들 간의 온라인 대화에서 승격적으로 "죽을래?"와 같이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이나, 특정 대상을 심하게 비하하는 욕설이 사용되면서 갈등이 폭발해 교육 관계가

크게 틀어진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악의적 의도가 아니라 "장난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상대에게는 깊은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13.9%는 부모와 교원을 거의 만나지 않으며, 8.8%는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대화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가정 내 대화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존중의 언어 습관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부모가 먼저 존중의 언어를 실천하며 자녀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정에서 존중과 공감이 담긴 대화가 이루어질 때, 자녀는 또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같은 태도를 이어간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자녀와의 일상 대화 속에서 부모로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고, 존중하는 어휘를 사용하기**

**둘째, 자녀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며, 질문을 통해 자녀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기**

**셋째, 갈등 상황에서도 존중의 언어로 차분히 대화 이어가기**

**넷째, 식사나 가족 모임에서 하루 감정을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공감하기**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따뜻한 존중의 문화가 형성될 때, 학교폭력 예방은 가정에서부터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은 단순히 교사의 생활교육이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정에서의 대화 습관, 부모와 자녀 간의 존중 어린 언어 사용이 무엇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토대가 된다.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존중의 언어가 학교에서 물려 받을 때, 폭력이 아닌 배려와 공감이 자리 잡은 교실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더 나아가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

### 폭력일까? 장난일까? - 경계없는 사이버 언어의 무게

#### 사이버 언어폭력의 유형

##### 차별

상대방에게 나쁜 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표현

##### 희롱

상대방이 화가 나도록 놀리거나  
익을 돌리는 표현

##### 조롱

상대방의 단점이나 약점을  
농담 삼아 비하하거나 놀리는 표현

##### 협박

상대방의 신체 등에 직접적인 해를  
줄 것 처럼 겁을 주거나 위협하는 표현

##### 욕설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표현이나 저속한 언어로 표현



#### 일상생활에서의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습관

온라인에 글을 쓰기 전 직접 손글씨로 먼저 적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즉각적인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 주목할만한 사이버 언어 폭력 현황(청소년)

※ 사이버 언어 폭력 유형은 욕설은 가장 많고 차등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출처: 2024 사이버 언어 폭력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구위원

## 자녀와의 공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시작해요!

### 공감이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가 힘들 때 그 어느 때보다 부모의 공감이 치유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신호

말수가 줄어들거나 표정이 어둡다.

학교나 학원을 빠지게 한다.

일부가 짜증스럽고 거칠며 공격적이다.

#### 힘든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말

##### 1. 힘든 감정을 읽어주는 말

"조금 힘든가보네.", "마음이 속상하구나.", "마음이 불편하구나."  
→ 자녀의 힘든 감정과 상태를 짐작할 수 있어 대화의 불꽃을 켤 수 있습니다.

##### 2. 힘든 감정을 풀어놓도록 하는 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어?",  
"어떻게 기분이 안 좋는지 얘기해줄 수 있어?"

##### 3. 수용하는 말

"아~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럴 수 있겠네."

##### 4. 공감의 표현

"--해서 --마음이 들었구나.", "--여 --생각이 들어 --감정을 느꼈구나."

##### 5.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게 어때?",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너는 무엇을 바라니?",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래?"

#### 힘든 자녀에게 피해야 하는 말

##### 1. 부정하는 말

"네가 힘든게 뭐가 있어?", "이건 힘든일이 아니야"  
→ 자녀의 힘든 감정과 행동 등을 부정하는 투의 말은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하여 대화의 문을 닫게 합니다.

##### 2. 비난조의 말

"왜 또 그래?", "징징거리지 좀 마. 엄마도 힘들어."  
→ 가장 피해자 하는 말로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분노를 유발하고 갈등으로 변질할 수 있습니다.

##### 3. 자녀의 이야기에 대한 심부름 고려

"간담 수 있어, 어겨내어지, 잘 참아내어지"

**아이가 힘든 점에 대해 이야기하기 망설이거나  
아이가 어떻게 이야기 할지 모르는 경우**

"기분과 관련해서 차우 떠오르는 이야기나 일이 있을텐데  
그게 무엇인지 얘기해줄래?",  
"떠오르는대로 이야기하면 돼."

이차원(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2025 언어문화개선주간 [언어습관 자기진단도구] 안내

### 언어습관 자기진단도구란?

일상의 언어 습관을 스스로 진단해봄으로써 언어생활을 점검하고, 주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방법

- ① [doran.edunet.net](http://doran.edunet.net) 접속
- ② '진단해요' 클릭
- ③ '언어습관 자기진단도구' 클릭
- ④ 자녀 학년에 맞는 언어권 클릭하여 다운로드

### 진단할 영역

말상대화 언어매질 불방언어 갈등언어 사형언어 매체언어



**한부모 민족도 조사**



민족도 조사에 참여 시 주점을 통해  
커피 기프트본을 드립니다!  
기간 - 10월 17(목요일) 23:30  
시간별 10명씩 선착순 커피 기프트본 (주점당 수 50명) | 소요시간 30(초)

**선착순  
받아가세요**

2025년 10월 1일

과 천 외 국 어 고 등 학 교 장